가천대 약술형 논술고사 국어(2025)

[2024년 8월 15일 발행]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정답·해설 10	09 정답 – 자아 성찰과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설 – (가)의 화자는 마음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너무 많은 기록을 남기면서도 쏘다니는 개처럼 머물지 못하는 청춘을 탄식하다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성찰하며 맺는다. 반면 (나)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도 학비를 받으며 유학 생활을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함으로써 무기력한 자신과 화해하고 변화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09 정답 – (가)와 (나)의 공통점은 젊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것이다. 해설 –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과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각각 내적 요인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성찰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한계와 삶의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기형도의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질투와 같은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삶의 부조리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 반면, 윤동주의 시에서는 일제 치하의 억압적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글을 쉽게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성찰하며,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두 시 모두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 출간 후의 오류, 오타 발견으로 정오표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